Wednesday Culture 2009-12-09 no.529

살아남으려면 글을 써라

천하를 얻은 글재주
류소천 | 북스넛

출세의 꿈, 글쓰기로 이루다

최근 한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좌를 진행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 그 강좌의 수강생들은 전문적인 글쓰기와는 거리가 있는 평범한 사람들로 백지에다 아무거나 써보라고 해도 몇 줄을 넘기지 못할 정도인데 글쓰기를 배우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좋은 글을 베껴 쓰는 것부터 가르치는데도 정말 열성적으로 글쓰기에 임하고 있다 했다.

글쓰기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핵심 문화 역량이었다.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웠다. 사마천의 『사기』가 그리고 있는 춘추전국시대에는 더욱 그랬다. 우리는 그 시대를 백화제방(百花齊放)이라고 표현한다. 백화제방은 수많은 꽃(사상)이 일제히 피어난다는 뜻으로, 자신의 꽃(이론)으로 무장한 사상가가 제왕에게 유세(遊說)를 잘하면 곧바로 승상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었다. 제왕과 군주에게 붙어서 기숙했던 수많은 식객들은 유세의 기회를 얻으려고 몰려든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즈음 최고의 유세 수단은 바로 글이기도 했다.

살아남으려면 글을 써라

한 편의 위대한 글은 세상을 바꾸었다. 진시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한 이사의 「간축객서」(諫逐客書)나 제갈공명의「출사표」, 사마천의 「보임안서(報任安書)」 등은 최고의 명문일 뿐 아니라 역사의 물꼬를 완전히 바꾼 기록으로도 읽힌다. 그때 이후 지식인에게 글쓰기는 언제나 최고의 생존전략이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글쓰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새로 등장한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트위터 등은 모두 글이다. 이제 짧은 글로 상대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힘겨운 세상을 이겨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디지털 시대에 최고의 생존전략으로 글쓰기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글쓰기 강좌에 평범한 주부들까지 몰려들고 있으며 글쓰기에 대한 책이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글재주로 천하를 얻은 이들의 이야기

『천하를 얻은 글재주』의 원제는 '품중국문인'(品中國文人)이다. 글 잘 쓰는 중국 문장가 이야기라는 뜻이다. 이 책에는 중국 최초의 자유사상가 굴원, 진정한 지식인의 초상 사마천, 고대의 지식장사꾼 사마상여, 당대 최고의 풍류 명사 혜강, 자연을 닮은 영성주의자 도연명, 광기와 야성의 유랑시인 이백, 속세의 고통을 대변한 관음보살 두보, 귀족과 평민을 오간 문학거장 백거이, 어질고 따뜻한 국왕 시인 이욱 등 9 명의 문장가가 등장한다. 결국 이 책은 글 잘 쓰는 재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다.

저자는 9 명의 삶을 정사와 야사까지 동원해 조명하면서 그들이 품었던 큰 뜻과 사사로운 욕망, 명문이 탄생하게 된 배경 등을 평전처럼 서술한다. 따라서 그들의 글재주에 대한 기계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야기처럼

쉽게 서술된 글을 읽으면서 문장가의 불우한 삶과 위대한 작품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그 시대를 힘겹게 살아내야 했던 민중의 삶까지 읽어낼 수 있다. 간간히 인용되는 그들에 대한 후대 문장가들의 평가는 문장가들의 삶이 지닌 현재적 가치를 가늠해보게 한다.

불운한 문장가들의 문학

지금은 이들이 천하를 얻을 정도의 글재주를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지만, 당대의 삶은 한결같이 평탄치 않았다. 여러 차례의 정치적 좌절을 겪다가 돌을 가슴에 안고 멱라강에 몸을 던져 자살한 굴원, 『사기』를 쓰겠다는 집념 때문에 궁형까지 당하며 구차하게 살아남은 사마천, 유분시(幽憤詩)를 쓰고는 의연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혜강, 병과 가난에 시달리다 죽은 도연명, 평생을 길 위에서 술에 취해 보낸 이백, 닷새를 굶은 뒤 술과 고기를 걸신들린 듯 먹다가 배 위에서 고통의 삶을 마감한 두보 등은 시대를 잘못 만난 탓에 불운의 삶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런 불운 때문에 위대한 문학이 탄생할 수 있었다. 저자는 서문에서 "당대에 천하를 움켜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시도 때도 없이 휘두르던 사람들이 역사에 이름자 하나 올리지 못한 것을 보면, 2 천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대중의 사그라지지 않는 추앙을 받고 있는 고대 문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천하를 얻은'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 그들은 심한 좌절을 겪었기에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뛰어난 글을 쓸 수 있었다. 글은 압제 속에서 거대한 힘을 발휘하게 마련이다. 20 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과 인류 역사상 유례가 찾아보기 어려운 동족상잔인 6.25 전쟁이 위대한 문학을 탄생시켰듯이 작가적 정서와 상황, 사상은 문자를 통해 억압의 가운데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사마천은 궁형의 치욕을 겪으면서도 인간 현실의 엄혹성에 질문을 던지며 진실을 기록하는 용기를 버리지 않았기에 역사성을 갖는 철학서이자 문학서로 평가받는 『사기』를 집필할 수 있었다. 권모술수와 암투의 희생양이 된 굴원은 이상 정치에 대한 집요함을 저버리지 않았다. 길 위에서 평생을 지낸 이백은 중국 대륙의 반을 다니며 수많은 산과 강을 만났기에 절창의 시를 남길 수 있었다. 가난으로 어린 아들이 굶어죽은 것을 경험한 두보는 전란의 참혹함을 무수히 겪었다. 하지만 굴원, 이백, 두보는 그렇게 힘겨운 세상을 살아내면서도 자유와 해방의 문학정신만은 버리지 않았다.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기에 무수한 고통과 슬픔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이나 슬픔은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 고통이나 슬픔의 정도가 너무 심했기에 가혹한 세상을 향한 커다란 외침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위대한 애국시인, 시선(詩仙), 시성(詩聖)으로 추앙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글재주는 소통하는 능력이다

이 책은 위대한 문인의 삶은 그가 사는 세상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탄생할 수 없다는 크나큰 교훈을 안겨준다. 황제의 권력에 도전하면서도 민중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았기에 유구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문인은 길 위에서 소재를 찾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수많은 취재여행을 떠난 사마천이나 길 위에서 떠돈 이백, 전쟁으로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닌 두보 등은 길 위에서 벌어지는 현실세계의 삶에 천착했기에 언제 어디서나 소통되는 치열한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성찰과 실천을 이야기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성찰하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지금은 또 다른 백화제방의 시대다.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등을 통해 치열한 글을 발표하고 무수한 동조자를 얻어낼 수 있다. 정말 때로는 메이저리그의 스타처럼 세상을 뒤흔들 수도 있다. 그런 꿈을 실현해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먼저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성찰과 실천의 의미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